

◀하나님! 나의 하나님▶ 기도의 편지

서정윤

하나님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하고
나는 나의 일을 합니다.

하늘 가득 먹구름으로 붉은 빗방울이
떨어지는 건 당신의 일이지만
그 빗방울에 젖는 어린 화분을
처마 밑으로 옮기는 것은 나의 일,

하늘에 그려지는 천둥과 번개로
당신은 당신이 있다는 것을
알리지만
그 아래 떨고 있는 어린 아이를
안고 보듬으며 나는
아빠가 있다는 것으로
달랍니다.

당신의 일은 모두가 옳습니다만
우선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쓸쓸함으로 외로워하는
아직 어린 영혼을 위해
나는 쓰여지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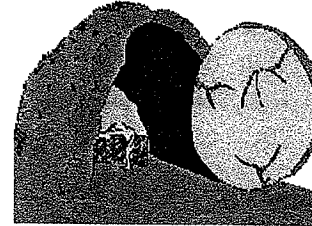
어쩌면, 나는 우표처럼 살고 싶어요
꼭 필요한 눈빛을 위해
누군가의 마음 위에 붙지만
도착하면 쓸모 다하고 버려지는 우표처럼
나도 누군가의 영혼을
당신께로 보내는 작은 표시가
되고 싶음은
아직도 욕심이 많음인가요.



◀그때 그랬지▶ 줄을 섰던 공중전화 박스
집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친구에게.. 모두 사연을
담고 서있던 공중전화 박스에는 기다림이 있었습
니다. 한 통화 후에 연거푸 전화를 걸면 “간단
히 합시다” 라는 말을 듣기 일수였지요.
서울역 앞의 공중전화 박스는 휴가 나온 군인들
이 제일 먼저 찾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모발폰에 밀려 쓸쓸히 서 있는 공중전화 박
스는 초로의 과객처럼 옛 영화를 그리워하며 텅
빈 채로 세월을 담고 있습니다.

교 회 목 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 인	“예수! 돈으로 살 수 없어 사랑으로 얻었다” (요13:35) 갈 보 리 교 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익명성 -명예
제6권 13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5년 3월27일
☎ 369- 5077 .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Holy Sepulchre).www.calvary.org.nz		

어머니의 낡은 성경책



오늘도 어머니는 두꺼운 돌보기 너머의 세상으로
저 만큼 가 있습니다.

한줄 한줄 성경말씀을 읽어 가면서 무언가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이 있으면
어머니는 빨간 색연필로 밑줄을 그으십니다.

빛 바랜 가죽덮개로 둘러진 그리고 당신의 육신처럼 모서리마다
헐어버린 말씀의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저는 어머니께 고급 가죽정장의 새 성경책을 사다 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지금도 낡고,
빛바랜 성경책을 보시고 계십니다.

아마도 평생 그어오신 밑줄에
어머니가 살아오신 삶의 흔적들이
곳곳에 담겨 있는 까닭일 것입니다.

이제는 너무나 익숙하고 오래된 친구가 되어 버린
낡은 성경책을 당신은 결코 멀리 할 수가 없는가 봅니다.

◀아내의 수칙▶

남편의 자리를 잘 정돈해주라.
남편의 자리가 어지럽혀 있어도
묵인해 주어라.
집은 편한 곳이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

◀남편의 수칙 ▶

아내의 말을 다그치지 말고
자상하게 들어주라.
듣는 것이
사랑하는 자세의 기본이다.
결론만을 요구하지 말고
일의 과정을 들어주라.

부활 주일 예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광송 Gloria	150장	다 같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홍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도자
*찬송 Hymn	159장	다 같이
*성서교독 Response Reading	부활절(62)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교회소식 Welcome & Announcements		
주일학교 Sunday School		아동부
찬송 Hymn	살아계신 주	다 같이
기도 Prayer		김교섭 장로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고린도전서 15:35-44	인도자
성가대 찬양 Choir		은십자가 성가대 (학생부)
설교 Sermon	『부활의 복음』	장성훈 목사
찬송 Hymn	155장	다 같이
헌금기도 Offering Pray		인도자
응답송 Response Song	‘이 믿음 더욱 굳세라’ (학생부 교사)	다 같이
축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예배를 마치고 Hall에서 Tea Time을 갖습니다)

◆3,4월의 예배위원◆

◆3,4월의 교회력◆

일자	기도	헌금위원	주방	은십자가
27	김교섭	김경천	청년부	학생부
3	김종건	김근식	봉사부	축의의 St Andrew's
10	김순자	김동숙	1구역	9,10구역
17	김영길	김미재	학생부	동문
24	박일영	김봉희	2구역	1,2구역

주 일	예배와 모임
27	부활주일 식사친교주일. 당회
3	성찬식 구역예배(8). 청년부수련회(8-9)
10	믿음의어머니기도회(12)
17	식사친교주일 학생부신앙캠프(22-23)
24	이삭줍기주일

2005년 교회생활 1. 성경 1독만 하기(하나님 사랑) 2. 전도하지 말고 대신 친절하자(이웃 사랑) 3. 처음 만난 날 처럼(교우사랑) 주일예배. 아동, 학생: 낮 12시 수요일예배: 7:30 pm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교회를 다녀 본 후 결정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새벽기도회: 금 6:00 청년부: 토 저녁 4시
--------------------------------------------------------------------------------------------------------------------------------	----------------------------------------------------------------------------------------------------

교우소식

<이사> 박혜련 집사. 이세진 성도 ☎480-2027. 7/90A Onewa Rd. Northcote
이근평, 임숙경 집사 ☎479-6876. 31 Nimstedt Ave. Albany

오늘은 부활주일

*예수, 천국, 영원한 생명, 소망... 부활이 있어 우리는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2005년 부활절 봉헌 성경쓰기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범위> 마태복음
*어느 교우덕을 심방한 목사님, 예배 후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친필로 쓴 성경을 부부가 각자 꺼내 와 보여줍니다. 아내는 친정 아버지의 친필 성경을, 남편은 어머니의 친필 성경을... 영화의 장면처럼 상상해 본 어느 날의 일기입니다. 그 부부의 살아가는 다음 장면은 글이 글로 표현치 않아도 그려낼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년 부활절은 마가복음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광고... 다음주일 예배는 행길 건너편 "St. Andrew's에서 드립니다"

*왜냐하면 마오리 본교회의 큰 연합예배가 있어서 입니다. 이민 초창기에 St Andrew's에서 신앙생활 하다 지금은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분들에게 추억을 움직여 전도하는 기회로 삼아 보세요. <주차안내부 모임: 예배 후 본당>

<정기당회>: 식사후 <권사모임>: 당회 직전

오늘은 식사친교주일.... 청국장 냄새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습니다. 저는 아직 구역에 편성되지 않은 분들이 가질 마음에 더 걱정이 갔습니다. 냄새야 사라지지만 사랑을 못느낀 마음은 얼마나 지나야 사라질런지요. 구역은 편의상일 뿐, 스스로 없이 모시고 함께하는 자리면 기쁘겠습니다.

수요일예배 <수요일 7:30pm> . 레위기 강해

*수요일예배 한 주를 쉬었더니 수요일찬양단원들의 찬양하고픈 마음억제가 무척이나 긴 보름간이었습니. 찬양, 기도, 말씀의 삼합이 이루어진 은혜의 수요일 밤입니다. 주님의교회 집회: 운동학 목사(서울 주님의교회): 2일(토)-3일(주일) 저녁 7:30

◀착한 시인▶ 어머니의 부활절 김성국

부활절 아침이면
가난한 얼굴에
흰 분 바르고
하얀 한복
하얀 헌금봉투

부활절 아침이면
예수님 보다
엄마의 모습이 더 고왔습니.

일년에 단 한 번
하얘진 어머니가 좋았습니다.

부활절 아침이면 놀랍게 변신하시던 어머니였습니다. 이후 부활절이 다가오면 나도 달라진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은 마음이었습니. 어느 것 하나 변하지 않았어도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없습니.

아무런 말씀 없이도 내게 부활의 소중함을 알려주시던 어머니.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한 힘이 되었습니다.